

여성 자영업자의 변화추이와 노동부담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Transition and Workload of Self-Employed Women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전공
교 수 정 영 금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nsumer & Housing Studies
Professor : Jeong, Young Keum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여성자영업자의 노동부담 |
| II. 국가별 여성 자영업자의 변화 | V. 결론-교육방향을 제시하며 |
| III. 우리 나라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 | 참고문헌 |

〈Abstract〉

One of the fastest-growing job categories for women in both the developed and the developing nations of the world is that of self-employment. In 1990 women accounted for 29% of all self employed workers. In Korea, self-employed women including unpaid family workers accounted for 40.4% of all female workers. They are in economically low status and have heavy workload.

So, this study examines the real state and problems of self-employed woman. For this purpose, the transition of the number of self-employed women is nationally compared. And the statistical data and time use data on them and role conflict due to paid work and household work are presented.

In the future society, self-employment will be a good alternative to self-realization and career for women. So, for self-employed women, following education is needed according to stages of business and characteristics of managers; entrepreneurship, management, and balance of work and family.

I. 서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증가하는 여성 직업군 중의 하나가 자영업분야

이다. 여성이 전체 자영업자들 중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대에 21%에서 1990년대에 29%로 증가하였으며, 점점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이 사업가가 되고 있다. 또 여성이 소유한 사업체의 수가 남성이 소유한

사업체의 수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다(Neft 외, 1997).

일본의 경우에 새로 시작하는 여섯 개의 사업체 중 다섯 개는 여성이 시작하는 것으로서, 여성이 벌이는 사업은 대부분 종업원이 5명 이하의 사업체이다. 또 싱가포르의 여성 경영관리자 중 38%는 자신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사업체 소유주 중 약 20%가 여성이다. 중국에서도 1978년이래 창업된 모든 사업체 중 1/4이 여성이 시작한 것으로서, 중국 자영업의 34%는 여성이 경영하는 것이다(Naisbitt, 1996).

이와 같이 아시아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새로운 사업에 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재정상태를 개선함과 더불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려는 욕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의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차별과 제약을 겪으며 '어머니의 길(Mommy Track)'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 일과 가정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기업의 규모나 종업원 수보다는 시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나 기술혁신 등이 경쟁력을 좌우하므로, 과거와는 달리 중소기업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전반적인 기업문화에서 혁신성이나 인간적인 관계가 강조되므로, 남녀를 불문하고 혁신적인 사업가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의 자영업분야 진출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1970년대 이후에 농업부문의 축소로 인해 자영업부문의 고용비중이 급격히 감소되다가 1990년 중반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비농부문에서도 1990년대 초반을 고비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류재우 외, 1999). 또한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예 비해서도 자영업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주의 비율이 1999년에 28.8%이며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하면 전체 취업자의 38.8%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자영업종사자들은 사업가정신을 가지고 혁신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소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향이 높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자영업자들이 기업가형보다는 생계형 자영업자라는 결과(류재우 외, 1999)에서도 제시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여,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40.4%로서 남성보다 높지만 고용주나 자영자의 비율이 낮다. 즉 여성자영업자의 사업영세성이 남성보다 심하며 사업소득이나 임금이 없는 무급가족종사자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여성자영업자들은 취업자의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위가 낮을 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문제를 언급할 때에도 임금근로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즉, 수요측면에서 여성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급측면에서 취업으로 인한 여성의 어려움을 제시할 때 임금근로자가 우선시되어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영업이 생계수단보다는 사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관련종사자들이 보다 높은 직업지위를 획득할 뿐 아니라 자영업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회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취업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 자영업자의 변화추이를 국가적으로 비교하고, 둘째로 우리 나라 여성 자영업자의 실태를 제시한다. 셋째로, 이들이 취업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이중노동부담의 측면에서 규명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동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모색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범위로 선택한 자영업자(혹은 자영업종사자)에는 구체적인 구분이 없는 한 고용주와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고용형태상으로 비임금근로자라고 통칭되는 부분인데, 여성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비중이 적을 뿐 아니라 고용주라 하더라도 주로 소규모 사업체의 운영자이며,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영업자를 대표적인 명칭으로 삼았다. 또 고용주와 자영자만을 한정했을 경우에는 자영업주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II. 국가별 여성 자영업자의 변화

세계적으로 여성자영업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자영업자들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대에 21%에서 1990년대에는 29%로 증가하였다. 여기서는 여성자영업자들의 증가추세를 국가별로 비교해봄으로써¹⁾ 각국에서 차지하는 여성자영업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여성자영업자의 비율을 제시하고자 한다.

호주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체의 1/3을 여성이 소유하고 있으며 28%는 여성과 남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또 캐나다에서도 여성사업가는 가장 빨리 증가하는 직업범주 중의 하나로서, 1985년경에 24%를 차지하던 여성 자영업자의 비율이 1995년에는 30%를 차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세배나 많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그들의 성공률도 남성의 두 배에 달한다. 따라서 캐나다 인권법안은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출정책에서 여성의 차별을 금지시켰으며 일부의 주는 동등한 신용기회지침을 채택하였다.

독일은 모든 사업체의 약 1/4을 여성이 운영하고 있으며 동독에서는 그 비율이 1/3에 육박한다. 대부분의 사업은 상업과 서비스업에 속하며 일부분만이 제조업과 수공업에 속한다.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새로운 사업의 약 1/3을 여성이 시작하였다. 이스라엘에서도 소규모 사업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 여성사업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많은 공적·사적 집단이 설립되었다. 그 결과, 1993년에 소규모 사업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는 신청자들의 22%가 여성지원자들이었다.

이태리에서는 1992년에 여성사업가들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여성들이 신용거래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관심이 있는 여성들을 위한 훈련과정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자영업여성의 비율은 1980년 13%

에서 1994년에 17%로 증가하였다. 일본에서도 자영업분야는 여성참여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것은 고용인을 둔 자영업자들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에 3%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대 중반에 19%에 이른 것으로 알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취업여성의 약 3%가 사업가로서, 이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의 소유자들이다. 이 사업체의 39%는 음식업이나 숙박업이고 나머지 34%는 상업, 26%는 서비스업이다.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는 여성들로 하여금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89년에는 저소득자들, 특히 여성들이 소규모의 농사, 식품가공업, 상업, 기타 벤처산업 등을 시작하거나 그 사업을 확장하도록 돕기 위한 정부용자를 제공하기 위해 People's Bank를 설립하였다. 이 은행에서 1994년에 총용자의 70%를 여성들이 수혜하였다.

필리핀에서는 여성 자영업자의 수가 매년 4%의 비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남성들의 증가율인 3%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5년 내에 상환할 수 있는 종자자금이나 저금리의 용자를 제공함으로써 여성기업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자영업자의 28%가 여성이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사업가라기보다는 노점상이나 저기술의 노동자들이다. 남아프리카에서 여성이 사업을 시작하기는 매우 어렵다. 은행은 여성에게 자금을 융자하기를 주저하며 때로는 남편의 서명을 요구한다. 따라서 추가 기금을 제공하여 1981년에 설립된 소규모사업개발공사로부터 용자를 받은 4만 명의 사업가들 중 25%만이 여성이었고 그들 중 대부분은 백인이었다.

스웨덴에서 여성사업분야는 빠르게 증가하는 분야로서, 여성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비율이 1989년에 15%에서 1993년에 19%로 증가하였다. 이 사업체의 대부분은 서비스분야이다. 여성사업가가 스웨덴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한 정부는 여성이 운영하는 회사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보나 상담서비

1) 자영업자들의 변화에 대한 국가비교 부분은 Naomi Neft & A. D. Levine(1997), Where Woman Stand; An International Report on the Status of Women in 140 Countries, 1997-1998.의 Country Profiles에서 발췌.

스, 훈련, 재정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여성 자영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자영업자의 1/4을 차지한다. 여성이 사업가가 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융자금을 보증하며 그 외에 훈련이나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에 여성이 소유한 사업체가 전체의 5%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는 전체 사업가의 1/3이상이 여성이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1993년에 소기업청에서 융자를 받은 여성은 1984년의 경우보다 두 배나 증가한 4000 명이고, 액수는 세 배나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여성이 소유하는 사업체는 1987년의 450만 개에서 1996년에 800만 개로 증가하였다. 또 이들 중 약 350만개는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나 가정에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재택사업체이다.

미국의 전체 취업자 중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0년에 47.2%로서 거의 1/2에 달한다. 그러나 취업자들을 고용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48.8%인데 비해, 전체 비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32.3%로서, 아직도 여성은 비임금노동에 적게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절대적인 숫자도 매우 적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율도 적다.

그러나 <표 2>의 고용형태별 여성비율의 변화를 보면,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보

다 빨리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미국 여성들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5년 43.2%에서 1980년에 45.3%, 1985년에 46.3%, 1990년에 47.2%로 계속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도 1975년의 44.8%에서 1980년 46.9%, 1985년 47.9%, 1990년 48.8%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보다 적기는 하지만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즉, 1975년에 23.7%로서 전체 자영업자의 1/4에 불과하던 여성의 비중이 1980년에는 28%, 1985년에는 30%, 1990년에는 32.3%로 증가하여 1/3을 차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취업한 여성 중에서도 자영업분야로 진출하는 비율이 남성의 자영업진출비율보다 빠르다. <표 3>에서와 같이 전체 남성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1975년의 10%에서 1990년의 12.4%로 약 20% 증가한데 비해, 여성의 경우에는 1975년의 4.1%에서 1990년의 6.7%로 약 50%정도 증가하였다. 즉, 아직 자영업에 진출해 있는 취업자의 수가 적고, 또 남성의 수보다 적기는 하지만 여성 자영업자의 수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여성 자영업자의 변화추이를 제시하였는데, 현재 각국의 자영업자의 수와 비율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대체로 선진국일수록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낮아 미국은 6.3%, 스웨덴은 5.5%, 독일은 6.4% 등이며, 우리 나라는 19.4%이다. 일본은 경제수준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소 높은 8.4%였으며, 특히 우리 나

<표 1> 고용형태별 비농부문 취업자수(1990)

(단위: 천명, %)

고용형태	남		여		계	
	취업자수	비율	취업자수	비율	취업자수	비율
임금근로자	58,824	51.2	56,014	48.8	114,838	100.0
비임금근로자	8,359	67.7	3,995	32.3	12,355	100.0
전체취업자	67,183	52.8	60,009	47.2	127,193	100.0

출처: Theresa J. Devine(1994), Characteristics of self-employed women in the United States, Monthly Labor Review, 117/3. 표 2, 3을 기초로 재구성하였으므로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음.

〈표 2〉 고용형태별 여성비율의 변화(비농부문)

(단위: %)

연도	전체취업자 중 여성비율	전체 임금근로자 중 여성비율	전체 자영업자 중 여성비율
1975년	43.2	44.8	23.7
1980년	45.3	46.9	28.0
1985년	46.3	47.9	30.1
1990년	47.2	48.8	32.3

출처; Theresa J. Devine(1994), Characteristics of self-employed women in the United States, Monthly Labor Review, 117/3.

〈표 3〉 성별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의 변화(비농부문)

(단위: %)

연도	전체 여성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	전체 남성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
1975년	4.1	10.0
1980년	5.2	11.1
1985년	5.8	11.6
1990년	6.7	12.4

출처; Theresa J. Devine(1994), Characteristics of self-employed women in the United States, Monthly Labor Review, 117/3.

라와 마찬가지로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았다. 경제발전수준과 자영업자의 비중간에 역의 관계가

존재함은 류재우 외(1999)의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가 있는데, 특히 한국, 일본, 이탈리아 등은 동일한 발전단계에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았다.

Ⅲ. 우리 나라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

1999년에 우리 나라의 여성 취업률은 47.4%인데, 이 여성취업자들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9%이다(〈표 5〉참고). 또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였을 때,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39.5%인데 비해 비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43.2%이다. 이 수치에는 농업부문 종사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수한 자영업상공인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또 종사자수로는 여성임금근로자의 수보다 작다. 그러나 고용형태별로 구분해볼 때 비임금부문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중이 임금부문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중보다 높다는 것은 우리 나라 비임금노동 부문에서의 여성노동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비임금근로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세분하여 보면,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반 정도가 무급가족종사자임을 알 수 있다. 즉, 전체 고용주집단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18.3%로서 여성의 취업력 점유율보다 현저히 떨어지는데 반해서, 무급가족종사자 중

〈표 4〉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에 대한 국제비교

(단위:명)

국가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전체(실업자포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미 국	3,818,000	6.3	89,000	0.1	56,863,000	93.6	60,771,000	100.0*
오스트리아	135,900	8.5	73,500	4.6	1,388,100	86.9	1,597,500	100.0
독 일	986,000	6.4	298,000	2.0	14,067,000	91.6	15,351,000	100.0
스웨덴	104,000	5.5	10,000	0.5	1,787,000	94.0	1,901,000	100.0
호 주	387,500	10.4	36,900	1.0	3,290,200	88.6	3,714,600	100.0
한 국	1,560,000	19.4	1,789,000	22.3	4,680,000	58.3	8,030,000	100.0
일 본	2,230,000	8.4	3,010,000	11.3	21,240,000	80.0	26,560,000	99.7*
싱가폴	43,100	5.5	15,000	1.9	722,000	92.6	780,100	100.0

출처; 2000 여성통계연보

* 인구수가 맞지 않아 100%가 안됨.

〈표 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여성비율

(단위: 천명, %)

종사상 지위	남		여		계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임금근로자	7,570	60.5	4,952	39.5	12,522	100.0
비임금근로자	4,408	56.8	3,351	43.2	7,759	100.0
*고용주	1,131	81.7	253	18.3	1,384	100.0
*자영자	3,047	68.4	1,410	31.6	4,457	100.0
*무급가족종사자	230	12.0	1,688	88.0	1,918	100.0
전체취업자	11,978	59.1	8,303	40.9	20,281	100.0

출처: 2000 여성통계연보, 1999 경제활동인구연보

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88%로서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이 무급노동자이며, 이들은 전체 여성 취업자의 약1/5에 달한다.

여성 비임금근로자들의 특성을 종사상 지위별로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30-49세 사이의 연령대가 가장 많고 70% 이상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자영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연령이 30대부터 6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90%정도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 사업체별 분포를 보면, 세 집단 공히 도소매음식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자영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어업종사자가 월등히 많았다. 사업체가 도소매음식업이나 농어업, 공공사회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은 남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여성의 경우에 집중현상이 더 크게 나타난다.

종사상 지위별로 남녀의 가족사항을 살펴보면,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용주, 자영자, 임금근로자 집단 모두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가구주비율이나 유배우자비율이 월등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20%대에 불과한 유배우자비율은 미혼여성취업자의 수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자 무급가족종사자와 달리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유배우자비율만 높은 것은 무급가족종사라는 것이 여성 기혼자에게 한정된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비임금근로자들의 노동부담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노동시간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평일 취업노동시간은 고용주의 경우에 7시간 35분으로 가장

길고, 자영자는 6시간 25분, 무급가족종사자는 5시간 53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 3시간 44분으로 가장 길고, 그 다음이 자영자로서 3시간 4분으로 집계되었으며, 고용주의 경우에는 2시간 30분이었다.

따라서 비임금근로자집단에 속하는 고용주의 총노동시간은 10시간 5분으로 가장 길며 그 다음이 자영자로서 9시간 29분, 무급가족종사자는 9시간 19분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특히 일요일에도 4시간대의 취업노동을 수행함으로써 평균 노동시간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보면, 평일 취업노동시간이 7시간 2분으로 고용주의 시간보다는 짧고 자영자의 노동시간보다는 길었다. 그러나 이들은 가사노동시간이 2시간 11분으로 비교적 짧아, 총노동시간이 비임금근로자집단보다 짧았다. 특히 일요일의 취업노동시간도 다른 집단보다 짧아, 평균 총노동시간이 가장 짧았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무급가족종사자 집단으로서, 이들의 취업노동은 다른 집단들보다 짧기는 하지만 평균 5시간 이상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도 평균 4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특히 가사노동시간이 어느 집단보다도 길어 총노동시간이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보다 길다. 즉 고용주를 포함한 자영자집단에 대한 논의에서 무급가족종사자들의 노동부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표 6〉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연령계층, 학력 및 사업체별 분포

(단위; %)

구분	집단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연령별	15-29	6.8	8.6	6.7
	30-39	32.6	22.2	24.6
	40-49	39.6	28.5	30.3
	50-59	17.7	18.4	20.1
	60+	3.3	22.3	18.3
학력별	중졸	27.4	59.4	64.1
	고졸	46.1	29.6	30.7
	전문대졸	5.3	2.5	2.3
	대졸	33.7	8.5	2.9
사업체별	농어업	0.4	21.5	40.9
	제조업	7.0	5.3	8.5
	건설	0.5	0.2	0.9
	도소매음식	64.3	49.3	41.8
	운수창고	0.0	0.2	0.0
	금융	3.5	3.0	1.9
	공공사회	23.8	20.5	5.5

출처; 김태홍(2000), 여성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정책방향, 한국여성개발원.

〈표 7〉 종사상 지위별 가구주 및 유배우자 비율(비농부문)

종사상 지위	남		여	
	가구주비율	유배우자비율	가구주비율	유배우자비율
고용주	79.0	76.8	7.8	13.3
자영자	60.3	58.0	11.4	24.7
무급가족종사자	1.2	3.5	0.1	87.1
임금근로자	50.0	45.5	8.7	21.5

출처; 류재우 외(1999), 우리 나라 자영업부문에 관한 연구

IV. 여성자영업자의 노동부담

취업주부들이 자아실현을 위해 일하건 경제적인 필요에서 일하건 간에, 맞벌이 가정에서는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맞추려는 스트레스로 인해 두 소득으로부터의 보상이 반감된다. 보스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Burden & Googins)에 의하면 여성의 37%와 남성의 36%가 그들의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으며, 여성의 11%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1989년 뉴욕 타임스가 149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일하는 어머니의 83%와 일하는 아버지의 72%가 일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한다고 응답하였다(Sekaran 외,1992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일과 가족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전체의 문제이지만, 특히 여성은 가정 일을 책임지고 있어 노동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가사노동에서의 불공평한 노동분담은 그들이 직업노동 외에 가사노동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인의 직업이 남편의 직업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여성은 2교대 노동(second shift)을 수행하게 된다.

〈표 8〉 20세 이상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평균노동시간

(단위: 시간:분)

종사상 지위 및 요일		취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총노동시간
고용주	평 일	7:35	2:30	10:05
	토요일	7:18	2:23	9:41
	일요일	4:56	2:44	7:40
	평 균	7:10	2:31	9:41
자영자	평 일	6:25	3:04	9:29
	토요일	6:24	3:03	9:27
	일요일	4:51	3:10	8:01
	평 균	6:11	3:04	9:15
무급가족 종사자	평 일	5:35	3:44	9:19
	토요일	5:15	3:31	8:46
	일요일	4:22	3:35	7:57
	평 균	5:22	3:41	9:01
임금근로자	평 일	7:02	2:11	9:13
	토요일	5:45	2:27	8:12
	일요일	2:59	3:06	6:05
	평 균	6:16	2:22	8:38

출처: 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통계청

실제로 우리 나라의 취업주부들도 이중역할로 인해 긴장도가 높고, 이것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박성옥 외, 1995). 또한 기혼취업여성의 노동부담을 조사한 연구(조희금 외, 1998)에서도, 이들은 개인생활 뿐 아니라 가정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며, 특히 근무시간이 길 때 노동부담이 컸다.

그런데 취업여성들 중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특히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노동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앞의 〈표 8〉에서는 자영자의 평균 취업노동시간이 주당 43시간 17분(하루 평균 6시간 11분)으로 임금근로자의 43시간 52분보다 약 40분 적었고, 가사노동을 포함한 전체 노동시간은 더 길었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비농부문 여성자영업자의 노동시간은 1998년에 주당 54.4시간으로서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보다 7.5시간 더 길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초로 한 김태홍의 연구(2000)에서도, 56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고용주의 경우에는 58.9%, 자영업자의 경우

에는 42.9%로서 상용고의 17.6%보다 훨씬 많으며, 남성근로자에 비해서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대우경제연구소의 1998년 한국가구패널조사를 기초로 한 연구(홍성희, 2000)에서도, 기혼취업여성 중 자영자의 주당작업시간은 65.8시간으로서 봉급생활자의 노동시간인 52.5시간보다 길었으며,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근무시간 만족도가 봉급생활자들에 비해 낮았다.

이와 같이 여성 자영업자의 노동시간은 임금근로자나 남성근로자의 노동시간보다 긴 것을 알 수 있는데, 여성비임금근로자의 노동부담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집단이 무급가족종사자들이다. 동일한 〈표 8〉에서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취업노동시간은 주당 37시간 34분으로 임금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보다는 짧으나 가사노동을 포함한 전체 노동시간은 더 길었다.

그러나 비농부문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류재우 외 1999)에 의하면, 여성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시간은 47.5시간으로서 자영업주의 노동시간보다는 짧으나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보다 길다. 또 56시간 이상 일

하는 여성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도 36.5%로서 상용고의 비율보다 훨씬 높다(김태홍, 2000). 즉, 여성무급가족종사자들은 노동에 대한 책임이나 노동시간은 고용주나 자영자, 혹은 임금근로자들보다 다소 적을지라도, 이들 못지 않게 장시간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보상이 없이 일한다는 점에서 직업에 대한 갈등이 가장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 자영업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재택근무자이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재택근무는 기업에서 임금을 받으며 가정에서 일하는 재택근로를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집단으로서, 한국가구패널조사를 이용한 연구(곽인숙 외, 2000)에 의하면 표본으로 선정된 여성의 약 50%가 재택자영업자였다. 이것은 40%에 이르는 남성 재택자영업자의 비율보다 높은 수치로서, 여성의 재택근무비율이 높았다.

재택근무는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 하나의 트렌드로서, 일과 가족생활을 통합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여성들에게 많은 장점이 있으나, 오히려 잦은 작업방해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중역할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공존한다(Rowe 외, 1992).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재택 자영업자들이 출퇴근 자영업자보다 노동시간은 길고 소득은 낮다는 결과와 결합해 볼 때, 여성자영업자들 중 재택근무자들의 어려움도 알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 재택근무가정의 일과 가족생활의 경영상태를 비교한 연구(Heck 외, 1992)에 의하면, 가정관리자들은 가정관리보다는 재택근무를 더 특징적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 좀 더 관리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 특히 유급활동에 대해서는 자원평가나 행동의 순서화와 같은 계획활동이나 실행하기 등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관리행동이라는 것이 유급의 재택근무에 더 적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두 영역의 노동이 혼재되었을 때 유급노동이 우선시됨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가족기업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정영금, 2000), 여성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들 대부분이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기업의 운영을 우선시하므로 가사노동은 최소화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자영업자가정은 생계

형 기업이 많아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주부들은 가사노동을 밤에 한꺼번에 하거나 계속 미루어두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자영업자가정의 주부들이 이중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가정생활의 질적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여성자영업자들은 생활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자영업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도와야 하는 여성들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좋은 취업 대안이다. 특히 고학력의 여성이 많이 배출되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피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미국의 경우에, 유리천정이라고 불리는,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각종 승진 제약과 차별에서 벗어나 자립하려는 여성들에게 기업가로서의 대안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여성 자영업자집단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세는 이 집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하므로, 다음 절에서는 여성자영업자의 교육이 부족한 현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V. 결론-교육방향을 제시하며

여성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본 절에서는 여러 측면의 지원책 중 교육적 측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여성자영업자들의 현황을 통해 이들의 노동부담이 과중함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여러 지원방안 중 현재 여성자영업자로서의 이중역할의 갈등을 해결하고 노동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교육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자영업자보다는 창업자에 초점을 맞춘 제도나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다. 창업 자금지원제도나 창업보육센터가 그 예인데, 창업을 통해 자영자가 되기는 하지만, 창업 후의 경영상의

문제나 가정운영의 문제 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둔다. 물론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으나, 창업 후의 성공률을 감안한다면 기업이 만족스럽게 유지되어 다음 세대에 계승되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물론이고 전체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체 운영에 대한 교육조차 찾아볼 수 없다.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중소기업청 등이 있기는 하나 상담이나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모든 지원이 창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기업체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보다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터득하거나 직장생활을 기반으로 경영훈련을 쌓는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창업자와 달리 사업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정문제로 제약이 많은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 자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의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여성기업인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김영옥, 1998), 여성기업인으로서 특별히 겪는 어려움으로 가사와의 병행, 남성위주의 업계에서 정보취득의 어려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상대하기, 거래처 접대 등을 들은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근래의 창업자들 중에서는 이전에 근무하던 조직을 보육기로 활용하여 조직환경을 훈련과 관계형성의 터전으로 삼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현장경험의 기회가 남녀에게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은 창업 및 사업에 필요한 경영관리능력이나 종합적 판단력을 창업전의 직업경험에서 얻기 힘들다. 일본의 한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남성 창업자는 70%이상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지식, 경험, 노하우를 개업 전까지 근무했던 기업에서 취득하였다고 하였으나, 여성들은 현장경험의 기회가 적어 경영관리능력을 쌓기 힘들었다고 하였다(정희선, 1999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여성들은 직장생활을 통한 훈련도 부족하고 사업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떨어지는 동시에 취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경영능력을 강화하고 비임금노동자 집단에서 여성 고용주나 자영자

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노동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자영업자들만이 겪는 어려움 외에도, 자영업집단은 사업단계, 사업체의 규모, 사업자의 특성별로 하부집단간에 차이가 많다. 즉 기업의 창업단계와 유지단계, 소기업과 중대기업, 사업자의 기술 유무 등에 따라 자영자가 겪는 어려움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들만이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하면서 각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나 정보 등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특히 여성자영업자 집단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와 재택근무자 집단을 고려한 세부집단별로 정보제공이나 상담이 이루어질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를 종합해 볼 때, 여성은 남성 에 비해 사업경험이 적고 남성중심적인 사업환경에 의 적응력도 떨어지므로 여성만을 위한 창업교육과 더불어 기업경영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 여성은 남성과 달리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경영교육도 필요하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사업의 단계나 규모에 따라 그들이 갖는 소득이나 당면문제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의 특성이나 자영자의 특성,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9>와 같은데, 여기에서는 사업단계와 교육대상별로 필요한 교육내용을 제안하고 단계별로 더 필요한 내용을 강조하였다. 사업단계는 창업단계와 창업후의 단계로 구분하여 현재 창업단계에 치중되고 있는 교육이 기업유지와 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교육대상은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업가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타 무급가족종사자나 재택근무자들을 위한 교육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창업교육, 경영교육, 일과 가족균형을 위한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창업교육내용에서는 기업가형 창업인가 혹은 생계형 창업인가에 따라 사업계획이나 아이템, 자금지원정책들이 다르므로, 사업규모에 따라 교육내용이 차별화되어야 한

〈표 9〉 사업단계 및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사업단계	교육대상	교육내용		
		창업교육	경영교육	일과 가족균형
창업단계	기업가형 창업자	중대기업에 적합한 사업아이디어창출 및 사업계획서, 새로운 사업경향.	일반 경영이론(경영전략,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	
	생계형 창업자	소규모 창업에 적합한 사업아이디어 및 사업계획서, 새로운 사업경향, 자금지원정책.	소기업에 적합한 경영이론(경영전략, 가계재무와 기업재무)	
유지 및 성장 단계	기업가형 자영자	새로운 사업을 위한 아이템 선정	경영이론, 여성기업가와의 관계망 형성, 인사관리, 기업문화, 의사소통, 전문경영, 계승	일과 가족생활간의 균형, 시간 및 노동관리
	생계형 자영자	새로운 사업을 위한 아이템 선정	소기업경영이론, 임직 및 가족원 관리, 고객관리, 자영업의 유지와 계승	일과 가족생활간의 균형, 시간 및 노동관리, 가족자원의 활용
	무급가족 종사자		자영업의 유지와 계승	가족자원의 활용, 시간 및 노동관리
	재택근무자		자영업의 유지	가족자원의 활용, 시간 및 노동관리, 작업장의 관리

*음영색이 진할수록 교육내용이 중요함을 의미.

다. 또 사업의 유지단계에서도 사업전환을 위한 교육이 요구되는데, 이것 또한 규모에 따라 달라야 한다. 둘째, 경영교육은 기업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데, 요구되는 경영이론이 중대기업과 소기업에 따라 달라야 한다. 현재까지는 대기업중심의 경영이론만 중시되었으나 기업체의 규모에 따라 전략이 다르므로 생계형자영자를 위한 소기업경영이론이 요구된다. 셋째,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교육은 여성자영업자들에게 매우 필요하다. 소득 수준이나 가용자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겠지만 모든 여성자영업자들에게 시간이나 금전자원, 기타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교육함으로써 노동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교육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장단기 강좌, 상담, 정보지 제공 등-을 통해 교육함으로써 여성자영업자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영업이 새로운 직업대안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광인숙·이경희(2000). 소규모 가족기업 소유자의 사업장 위치와 근무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3), 27-37.
- 2) 김영옥(1998). 여성의 창업과 기업경영.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3) 김태홍(2000).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4) 류재우·최호영(1999). 우리나라 자영업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2(1), 109-139.
- 5) 박성욱·김정훈(1995). 취업모의 가정생활과 일의 균형을 위한 방안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3(5), 13-25.
- 6) 정영금(2000). 가족기업가정의 가족자원관리에 대한 사례연구. 생활과학연구논집(가톨릭대 생활과학연구소) 20(1), 5-18.
- 7) 정희선(1999). 일본에서의 여성창업현황과 지원정책. 경영논집(서울대 경영연구소) 33(3), 462-481.

- 8) 조희금 · 이연숙(1998). 취업기혼여성의 노동부담 및 대처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125-139.
- 9) 통계청(1999). 경제활동인구연보.
- 10)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 11) 홍성희(2000). 기혼취업여성의 취업특성과 직업 만족도 영향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8(10), 143-156.
- 12) 존 나이스비트(1996). 메가트렌드 아시아.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13) Devine T. J(1994). Characteristics of self-employed women in the United States, Monthly Labor Review 117(3).
- 14) Heck, R. K. G, M. Winter, & K. Stafford(1992). Managing work and family in home-based employment,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2), 187-212.
- 15) Naomi Neft and A. D. Levine(1997). Where woman stand. New York: Random House.
- 16) Rowe, B. R. and M. T. Bentley(1992). The impact of the family in home-based work.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3), 279-297.
- 17) Sekaran, U. & F. T. L. Leong(1992). Woman power. Sage Publications.